

긴급진단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 문제 없나 (하) 하수도 처리

1일 5926t 배출... 질소 성분 118kg 지하 유입

사업 예정지, 개인하수시설 밀집돼 지하수 오염 진행
상류서 하수 장기 방류 시 하류 상수도 수원 악영향
전문가 “모든 하수 고도 처리해 전량 재활용” 강조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이하 '애월포레스트')에서 발생하는 하루 하수량이 592t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사업부문별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8~9월쯤 본안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수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만 있을 뿐 장기 방류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월포레스트 내 하루 하수 발생량은 7986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60t(26%)은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나머지 5926t(74%)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지하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하수는 법적 기준인 총질소 20mg/ℓ 이하로 처리돼 지하로 배출된다. 기준치인 20mg/ℓ에 맞춰 하루 5926t의 하수를 처리할 경우, 118.5kg의 질소 성분이 지하에 유입된다. 연간 약 4만3000t에 달하는 양이다. 법적인 기준에 따라 하수를

처리한다 해도 방류수 유입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지하수 내 질소 축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에월포스트가 들어서는 제주 시 에월읍은 이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이 진행 중이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에월읍 지역 지하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10mg)을 초과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

현재 애월포레스트 하류 어음·납
음·상가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관정
42공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류에서
장기간 하수를 방류할 경우, 광역
상수도 수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생활하수나 폐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

로 배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하수를 고도 처리해 전량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하수를 생활용수·조경수·인공함양 등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고도처리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하수는 법적 기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시점에선 방수량에 따른 세부 협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한화 측은 전락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과 전문업체 위탁 관리를 통해 처리 수질을 유지하고 3개 마을이 참여하는 지역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남방노랑나비들의 여름 견디는 방법 10일 서귀포시 성산을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무더위에 지친 남방노랑나비들이 젖은 땅의 물기를 빨아먹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자살률 전국 최고, 예방책 강화해야”… 4면 / 수박 주산지 가뭄 심화… 5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 알 람 | —

제32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맑고 푸른 제주를 가십시오

한정가격대상			선정방법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일반 및 대학	대상	300만원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추천서 (소정양식) 1부 ② 한라일보 홈페이지 (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최우수상	100만원			
고등학교	우수상	70만원	▶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최우수상	70만원			
중고등부	우수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 한리일보

초등생 대상 '여름방학 프로그램' 풍성

서귀포시, 천문교실·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서귀포시 감귤박물관과 서귀포천
문과학문화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나의 생일 별자리'를 주제로 '방학 천문 교실'을 이달 23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주 수·목요일(오후 3~4시)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초등학교생까지다. 프로그램은 ‘황도 12궁’을 주제로 한 천문학 강의와 ‘나의 생일 별자리 도장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4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 홈페이지에서 회
차별로 2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또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감귤박물관 키즈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

정이다.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8월 2일 총 6회차(오전 10~낮 12시)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아이들이 직접 감동 박물관을 주제로 홍보 기획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숏폼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이다. 제작된 결과물은 가족을 초청한 시사회에서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 결과물은 공영관광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감골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상시 송출되며, 수료자에게는 특별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이달 21일(오전 11시부터)~22일(오후 6시까지) 감골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공개추첨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가장 신선한 제주 해산물 요리
한결같은 레시피
간편 조리식품
따뜻하게 데워 손쉽게 즐기는 한 끼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운 할머니의 손맛!

제주몬국

고사리 육개장

성게전복미역국

가족을 향한 마음을 담은 할머니의 정성어린 한끼,
그 맛이 그리워 신한에코가 다시 한 번
할머니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깊고 맑은 제주 할머니의 손맛을 만나보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